



아카이브의 산실, 김달진 관장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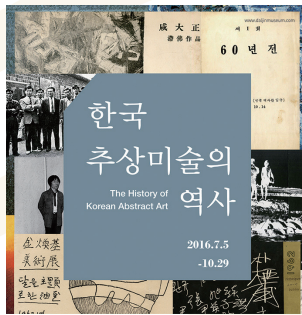
박물관 옥상에서 바라본 풍경

어린 시절부터 우표, 담뱃갑, 미술잡지 등을 모으는 것이 취미였던 한 소년은, 1972년 고등학교 3학년 여름 경복궁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근대미술 60년전〉을 보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인쇄물로 된 서양의 명화만 보다가 처음으로 주옥같은 우리 근대미술 작품을 실물로 보게 된 것이다. 당시 50원이었던 입장권과 200원짜리 팸플릿을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그가 바로 한국 미술자료 아카이브의 산실인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의 김달진 관장이다. 그는 이 전시를 보고 우리나라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다 보니 자료가 많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직접 인사동 등지를 발로 뛰며 미술과 관련된 모든 것들 모으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에 이르렀다.

상명대학교 앞에 위치한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이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지는 채 2년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2001년 평창동에 처음으로 김달진미술연구소를 열었고, 2008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개관했다. 종로구 평창동, 통의동, 창성동, 마포구 창전동 등지를 옮겨 다니던 끝에 2014년 9월 지하층, 지상3층 규모의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 박물관 겸 사옥을 마련해 2015년 3월에 재개관했다. 90년대 초에 지어진 낡고 허름한 건축물이었던지라 대량의 자료를 보관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를 보강하기 위해 거금을 투자해 리모델링해 지금의 건물로 탄생했다. 지하는 작은 전시공간과 수장고로, 1층은 메인전시장, 2층은 미술정보센터와 관장실, 3층은 학예연구실과 편집부로 사용되고 있다.

옥상으로 올라가면 인근의 탁 트인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건물은 뒤편에 보이는 '이광수 별장'이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건물을 개인이 매입하여 수리한 뒤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왼편에 '침박물관'은 죽음을 섬으로 생각하고 우리 전통 상여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 옆에 가수 장사의 선생의 집, 상명대 상명아트센터 밑에 '스페이스 흥지'가 있다.



현재는 한국 추상미술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총망라한 <한국추상미술의 역사展>(2016년 7월5일~10월 29일)이 전시되고 있다. 김달진 관장은 전시장 한 쪽에 연대기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한국추상미술 단체전·개인전의 도록과 팸플릿 외에도 작품 8점을 하나하나 설명해주었다.

현재 진행중인 전시의 흐름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1950년대 '국전'이 사실주의 위주로 흘러가게 되자 '반(反)국전'을 내걸고 추상미술작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60년 신예작가들이 덕수궁 벽에 작품을 걸었던 '벽전'을 비롯해 '현대전', '60년전' 등을 통해 비정형 양포르멜(Informel, '부정형(不定形)인 것'이란 뜻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추상회화의 한 경향) 회화가 등장했고 바우하우스운동(1919년 건축가 그로피우스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공업 기술과 예술의 통합을 목표로 하며 현대건축과 디자인에 큰 영향을 끼친 독일 바이마르 소재의 국립 조형학교)의 영향을 받았던 신조형파라는 단체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팸플릿에는 지금과 사뭇 다른 느낌의 박서보 작가의 젊은 시절 사진이 실려 있죠. (웃음) 현재의 국립현대미술관이 1969년 경복궁에서 개관되었는데 그때 전시했던 한국아방가르드(AG)전에는 지금의 김구림 작가 뿐만 아니라 평론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포트해 주었습니다. 한국 현대미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단체였죠."

전시이외에도 함께 진행 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전시와 연계하여 세 번의 특강을 했었는데 일반인보다 화가나 비평가 같은 전문가들이 많이 신청했습니다. 장소가 협소다보니 강의가 있는 날이면 진열장을 모두 한 곳으로 밀어놓고 강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번전시는 단순히 한국의 추상미술과 관련된 자료를 전시해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술적인 의미를 부여해 책으로 남겼는데 당시의 기사, 사건과 이슈, 연표까지 담았습니다. 또한 2011년 한국미술이 외국에 진출한 역사와 2012년 외국미술이 한국에 전시된 역사, 2014년에는 우리나

한국 추상미술의 평가와 전망_ 미술전문가 20명의 설문조사									
01 한국 추상미술 대표 전시					02 한국 추상미술 대표 작가				
순위	전시명	득표수	순위	작가	득표수	순위	1	2	3
1	한국 50년대 작가 다모자회의 원전전 (1975, 일본 동경하심)	14표	1	김기창	14표	4	박서보	13표	12표
2	한국적 단색화전 (2012, 국립현대미술관)	8표	2	박수근	13표	5	이우환	12표	4표
3	1회 한미미술가협회전 (1967, 미술보존)	6표	3	이강	13표	6	장욱진	12표	3표
4	1회 백화미술가협회전 (1960, 덕수궁의 정동 공화당 앞)	3표	4	이우환	13표	7	조소앙	12표	3표
5	1회 세움 드 서울 (1975, 국립현대미술관)	3표	5	이우환	13표	8	조소앙	12표	3표
03 한국 추상미술에 기여한 인물					04 사건과 이슈				
순위	이름	득표수	순위	내용	득표수				
1	한미미술 전시, 단색화 시장 형성, 국내외 관심 고조	14표	1	한미미술 전시, 단색화 시장 형성, 국내외 관심 고조	14표				
2	한국 50년대 작가 다모자회의 원전전	5표	2	한국 50년대 작가 다모자회의 원전전	5표				
3	1회 백화미술가협회전	3표	3	1회 백화미술가협회전	3표				
4	1회 세움 드 서울	3표	4	1회 세움 드 서울	3표				
5	1회 한미미술가협회전	3표	5	1회 한미미술가협회전	3표				
6	1회 백화미술가협회전	3표	6	1회 백화미술가협회전	3표				
7	1회 세움 드 서울	3표	7	1회 세움 드 서울	3표				
8	1회 한미미술가협회전	3표	8	1회 한미미술가협회전	3표				
9	1회 백화미술가협회전	3표	9	1회 백화미술가협회전	3표				
10	1회 세움 드 서울	3표	10	1회 세움 드 서울	3표				

전시장 한쪽 벽면에는 미술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추상미술에 관한 설문조사가 전시되어 있다.

라 박물관, 미술관, 화랑, 대안공간의 역사를 전시하고 책으로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미술을 공부하는 이들이 보기에 필수적인 책임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사소한 것들까지도 아카이브 했다. 어찌보면 편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사소한 자료까지도 아카이브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1952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벨기에현대미술전이 한국에서 열렸고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없었겠죠. 이러한 예가 자료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1950년대 포스터들에는 연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해당년도에 행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표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백의의현대미술전(白耳義現代美術展: 백이외의 벨기에의 한문) 팸플릿을 소지한 사람이 별도로 1953년도라고 표기했었으나 따로 신문자료를 리서치해 보니 1952년으로 파악해 수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느꼈습니다.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일, 그리고 기초조사, 소스, 통계를 통해 많은 것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제가 특강을 나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티켓이나 포스터 한 장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시의 타이포그래피, 대표작품, 입장요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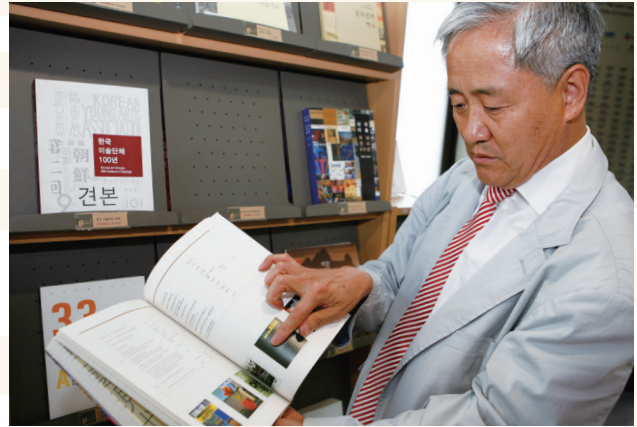
환하게 웃으며 추상미술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김달진 관장은 그야말로 '걸어 다니는 미술사전'이라는 별명에 걸맞은 모습이었다. 전시장에는 이번 추상미술전시 팸플릿과 단행본(342쪽), 보도기사 뿐 아니라 김달진 관장이 직접 작성했던 연표와 스크랩북, 통계자료까지 비치해 놓았다. 전시를 모두 관람하고 2층의 관장실로 올라가 인터뷰를 이어나갔다.

김달진 관장님은 그동안 책으로 된 자료뿐 아니라 방대한 양의 무형자료를 기록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자료는 보전, 보존뿐만 아니라 분류하는 일에서도 고난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나갔습니까.

자료를 모아 자료수집에서 끝났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통계를 내고 자료를 정리해나가며 계속해서 글을 썼습니다. 공모전, 미술상, 미술잡지 등 미술계에 존재하는 문 제점들을 지적하는 글을 쓰면서 뉴스메이커로 불리기도 하고 월간미술과 가나아트에 기고했던 글들이 일간지에서 자료로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내가 쓴 글은 자료로 인용해 기사화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을 그만두고 가나아트센터의 이호재회장과 인연이 닿아 가나아트센터(처음 1996년에는 가나미술문화연구소)의 자료실장으로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처음으로 달진닷컴이 홈페이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수많은 미술 자료를 웹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당시에는 획기적이었을 것 같은데 반응 이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인터넷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열풍은 미술계도 마찬가지였고, 가나아트센터가 가나아트닷컴(ganaart.com)을 별도 법인체로 출범하며 외부투자까지 받는 벤처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전시정보, 작가약력, 판매장터, 미술 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웹아트까지 선도하며 국제디지



털아트페어(IDAF)도 주관했었습니다. 이외에도 인터넷미술방송국 아트빌(artvill.com), 표향량이 동영상으로 진행한 옥션아츠(auctionarts.co.kr), 교수작가들이 모여 만든 사이버화랑 아트미(artmi.co.kr) 등 많은 미술사이트들이 생겨났습니다. 더구나 미술관, 화랑, 작가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트들은 나름대로 전시정보,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창구로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1999년 시작한 네오룩(neolook.com)이 전시회 정보제공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나로서는 다양한 미술에 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당시 창간한 미술정보지 서울아트가이드 콘텐츠를 담고 브랜드를 만들어 가기위해 달진닷컴(daljin.com)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빠르게 업데이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 제가 달진닷컴이 만들어졌을 때 반응은 미술계에 알려진 '달진'이라는 제 이름이 들어가서 쉽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며 콘텐츠가 쌓이고, 이후 몇 번의 사이트 리뉴얼을 하는 투자 끝에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달진닷컴’은 많은 양의 자료를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눈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달진닷컴 사이트맵 구성은 이용자들이 많이 찾게 될 정보를 앞세웠습니다. 당일 언론에 보도된 미술기사를 볼 수 있게 하고, 학술, 행사, 강좌 등을 소개했습니다. 전시는 오늘의 전시, 화제의 전시, 전시평론의 국내 뿐 아니라 7개국에 있는 외국통신원들을 통해 수집한 외국의 중요 전시정보를 매달 70여 건씩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술평론가, 큐레이터 등 오피니언리더의 한국미술계의 과제, 한국미술의 현상, 스페셜, 미술시장 칼럼에 비중을 높였습니다. 또한 미술 신간도서, 미술잡지, 학회지의 빠른 정보 제공에 우리가 소장한 도서를 검색하여 열람까지 연결시켰죠. 궁금한 작가정보를 7,000여 명의 이상을 검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더 이상 일이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듯합니다.



자료를 디지털화하게 된 이후로 아카이브하는데 있어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달진뮤지엄닷컴(daljinmuseum.com)을 통해 대표소장품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래된 아날로그자료는 보존과 열람에 한계가 있어 디지털화가 필수입니다. 더구나 이용자들은 직접 찾아오기보다는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서비스 받기를 원하고 있기에 디지털화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분류, 보존할 때도 디지털사진촬영과 DB구축을 통해 단계별 작업을 이전에는 모두 수작업으로 하던 것의 수고를 많이 줄였습니다. 이와 함께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운영하여 오래된 보존가치가 있는 아카이브 자료들을 소장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료들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전시로 꾸며내고 연구하고, 평가하여 학술도서 발간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하듯이 자료에 맥락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 디지털화된 자료도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창동 가스충전소의 위치에 ‘자문밖 미술문화복합공간’이 세워집니다. 방대한 양과 다양한 자료가 아카이브 될 예정인데 다른 도서관이나 아카이브 공간과 차별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자문밖 미술문화복합공간’의 정확한 성격과 구성을 정확히 알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조언이 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전문인의 서재식 공간이나 미술도서나 자료를 도서관처럼 분류해 단순히 열람시켜주는 역할에서 떠나야 하고 일반적인 아카이브와는 다르게 적극적인 수집과 자료의 활용이 있어야 합니다. 종로구는 서울의 중심에 있으면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사립박물관도 26여개가 있습니다. 그 박물관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으고 종로구 안에 위치한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과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구기동, 부암동, 신영동, 평창동, 홍지동에는 많은 예술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종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프로젝트와도 연계하여 그들의 삶을 통해 시대를 되돌아보기 위해 구술사채록사업도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작가에게 중요한 자료들도 선별해 보존해 나가면 훌륭한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문밖 미술문화복합공간’의 경우는 아날로그 시스템과 디지털 시스템이 병행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달진연구소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데 온라인까지 함께 운영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디지털환경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이전에는 사이트에 좋은 정보가 있으면 찾아와 보고가곤 했지만, SNS가 활성화된 요즘에는 SNS에 업데이트해주지 않으면 찾아와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운영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 원하는 전시정보도 얻고, 필요한 책과 자료도 찾고, 자료를 통해 작가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인력과 재원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프로그램밍을 잘하면 자동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는데, 이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또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이죠.

앞으로 많은 자료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도 아카이브 될 것 같습니다. 관장님은 아카이브의 형태가 어떻게 발전해나갈 바라십니까.

아카이브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적으로 영구보존할 가치 있는 공공기록물 또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기관입니다. ‘오래된 미래’, ‘법고창신’ 등의 말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해답은 과거에 있다는 것이지요. 아카이브의 외형적 형태는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 박물관(Museum)성격을 복합한 라키비움(Larchiveum)의 융합공간으로서 변화해갈 것입니다. 전시장을 갖추고 전시도 하고, 서가를 배치해 열람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며, 온라인사이트를 구축해 다양한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후대를 위한 기록보존소의 역할로 돌아가 본연의 목표를 충실하길 바랍니다. 그러한 본질적 가치를 지킬 때에만 비로소 다른 기관에게는 없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게 되며,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